

청년세대의 고독과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박준규 |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

■ 정치적 양극화만큼 깊은 것은 청년세대의 고독이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정치적 언어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차별을 말한다. 누군가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진영과 이념의 언어 아래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일 것이다.

과거의 청년들은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감각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2030 청년들은 성장과 희망보다 생존과 불안을 먼저 배운 세대가 되었다.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시스템적 연결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단절을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취업과 주거, 경쟁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연대보다 고립이 더욱 익숙한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치는 청년의 불안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고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사회구조와 약화된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상실이 만들어낸 시대적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은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지역과 계층이라는 정치적 구분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은 특정 진영의 언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결과 정치는 청년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규정하고 대립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정치적 언어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특정 이념을 맹신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이해해줄 공동체를 갈 길 잃은 사람처럼 찾아헤매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과격한 분노와 냉소, 혐오와 조롱의 문화 역시 결국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세대의 외로움이 뒤뜰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현상일 수 있다.

■ 평화와 민주주의는 청년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담론 역시 이러한 거리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성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은 역사적 경험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였지만,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그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청년세대가 평화의 가치를 외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거대한 국가 담론이 현실의 언어로 다가오기 어려운 것이다.

청년 세대가 공동체와 공공의 가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진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민주주의 역시 청년들의 삶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감이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제도적 절차를 넘어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는 이해와 회복의 민주주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청년세대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지치고 외로운 세대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청년 세대의 고독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시대와 과열된 경쟁,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시대적 감정이다.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시대정신을 청년들 스스로 새로운 어젠다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전 세대들이 국가의 미래의 주축인 청년들과 힘을 합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역시 상대 진영을 이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민주주의여야 한다.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적대와 진영 대결이 아니다.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상대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서로를 '온전한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데 있다. 현 사회에서 결핍되어있는 온전한 인간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포용과 공존은 공동체 회복에서 시작된다.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은 특정 이념의 승리가 아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다.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라는 가치 역시 결국 공동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적 성장이나 제도적 발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대한민국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일 것이다.